



한문학의 디지털인문학적 연구 방법 시론



구지현 | 선문대

1. 서론

디지털인문학이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활동”¹⁾이라고 정의된 바 있다. 연구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연구 결과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일은 이미 상용화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의 DB(<http://db.itkc.or.kr/>)나 한국역사정보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은 연구자들이 일상적으로 접속하는 곳이 되었다. 방대한 고문헌 데이터를 웹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한문학 연구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류인태는 고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한 최근 디지털인문학연구 사례 아홉 가지를 소개하고 “데이터의 규모”와 “연구대상 범위”, “디지털 방법론 활용 다양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바 있다.²⁾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연구”,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자료를 활용한 친족관계망정보시스템(LNIS) 개발 연구”, “수신사(修信使) 및 조사시찰단 자료 DB 구축연구”, “『지암일기(支菴日記)』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는 프로젝트 형태로

1) 김현 · 임영상 · 김바로, 『디지털인문학입문』, 휴복스, 2016, 17면.

2) 류인태, 「디지털 인문학과 한문학 연구」, 『한문학논집』 49집, 근역한문학회, 43-76면.

진행된 공동연구이고, “고문서(古文書) 연구를 위한 데이터 기술(記述) 모델 연구”, “역사자료 텍스트의 전자적 기술에 의한 지식 관계망 구현 연구”,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의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과 인적 관계망 구현 연구”, “고전문학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 연구”, “『덕천원생록(德川院生錄)』과 시맨틱 웹 DB 연구”는 개인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사례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기초단계에서 온톨로지를 설계하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맨틱 데이터로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우선으로 하든 시각화를 우선으로 하든 본질적으로 대규모의 문헌을 다루고 있으며, 단일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로 편찬해낼 모델을 정립하려하였다는 측면에서, 문헌의 유형과 형태가 다양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기본적인 방향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개념이 제시되었는데, 바로 “스몰데이터”이다. 스몰데이터는 빅데이터에서 제공받아 특정한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섬세한 형태로 가공된 데이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사례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공동연구이거나 개인 연구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인문학이 개인적이고 단기적인 연구로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스몰데이터의 개념은 이런 의문에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 위 논문에서 지적한 대로 “한문학 연구에서 스몰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그로부터 여러 유의미한 연구 결과들이 누적”된다면 빅데이터의 질적인 수준 제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디지털인문학의 과제 방향으로 제시된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인문학 연구”³⁾라는 점과도 부합된다.

본 발표에서는 조선 중기 읍취헌(攄翠軒) 박은(朴溫, 1479-1504)의 한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스몰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한문학 분야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 대상을 읍취헌의 한시로 하는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그의 시 특성이 디지털인문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 읍취헌 박은 시의 형식적 특성

박은은 연산군 때 18세의 젊은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 생활을 시작하였다.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선발되고, 홍문관에 배속되고 경연관을 지내는 등 조선 시대의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유자광(柳子光)을 탄핵하였다가 도리어 파직되었고, 결국 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동래(東萊)로 유배되었다. 곧 다시 서울로 끌려와 옥고를 치렀으나 이 해 6월 사형을 당했는데, 이때가 26세에 불과하였다. 중종반정 후 신원되어 도승지로 추증되었다.

3) 김현 · 임영상 · 김바로, 전게서, 44면.

그의 유고는 여러 번 중간되었다. 죽고 나서 10년이 되는 해인 1514년 벗이었던 이행(李荇, 1478-1534)과 남곤(南袞, 1471-1527)이 그의 유고를 수습하여 문집을 발간하였다. 1651년 초간본을 중간하였고, 1709년 중간본에 빠져있던 고시 등을 더 증보하여 삼간하였으며, 1795년에는 정조가 직접 편차하고 증보하여 사간하였고, 1843년에 삼간본의 닳아버린 부분을 보완하여 중인한 것이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선본으로 선택한 것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4권 2책의 사간본이다.

그의 시는 파직당한 후인 1502년부터 1504년의 3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사간에 이르는 동안 증보되었으나 겨우 221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출간이 거듭되었던 것은 그의 시가 상당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듯하다. 중간본의 정두경(鄭斗卿, 1597-1673) 서문에는 “젊을 때 최간이, 권석주 두 공께서 읊취헌 문장이 동국 제일이라고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그랬다. 시는 기격이 방일하여 황태사와 견줄 만하고 문장 역시 아견하여 서한에 매우 가깝다.”⁴⁾라고 평하였다. 당대의 문장과 시인으로 꼽히는 최립(崔岾, 1539-1612)과 권필(權輅, 1569-1612)이 박은의 문장을 조선 제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런 평은 삼간본의 서문을 쓴 유득일(兪得一, 1650-1712)의 언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직접 서문을 쓴 정조는 매우 극찬을 하여, 시경의 근본에 가깝다고까지 하였다.⁵⁾ 서문을 보면 유득일과 정조가 박은의 시를 매우 애독하였던 정황이 포착된다.

읍취헌의 시에 대한 제가의 평을 살펴보면 본인이 추구하는 시풍이 무엇인지를 막론하고 시적 성취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선집 『국조시산(國朝詩刪)』의 편자였던 허균(許筠, 1569-1618)은 “박은의 시는 정성(正聲)은 아니지만 엄진경한(嚴縝勁悍)하다. ‘春陰欲雨鳥相語 老樹無情風自哀’와 같은 구절은 당시의 섬려(纖麗)함을 배우는 자가 어찌 감히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⁶⁾라고 평하였다. 허균은 성당(盛唐)을 시의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른 소리[正聲]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곱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당시를 배우는 사람은 이를 수 없는 경지라고 하였다. 홍만중(洪萬鍾, 1643-1725)은 “그의 시는 천부적인 재주가 매우 높아 인공을 범하지 않아 허공에 기대 망상을 잡는 듯 하다”⁷⁾라고 평하였다. 홍만중 역시 당풍을 추구하였고 의고주의적인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읊취헌의 시풍이 맞는 것은 아니었으나 천재성만은 인정하였다.

읍취헌의 시는 18세기 들어서 평가가 더욱 높아졌다. 가장 높이 평가했던 인물은 김

4) 朴聞, 『挹翠軒遺稿』 4권 「挹翠軒遺稿序」. “少時嘗聞 崔簡易權石洲兩公 推挹翠文章東國第一 後見良然 其詩氣格放逸 可與黃太史雁行 文亦雅健 大逼西漢”

5) 朴聞, 『挹翠軒遺稿』 1권 「挹翠軒遺稿御製序」. “挹翠善於詩 有國風之遺響 爲東方絕學之倡 而予特愛挹翠之於詩 倘庶乎詩之本”

6) 許筠, 『惺叟詩話』 “朴之詩 雖非正聲 嚴縝勁悍 如春陰欲雨鳥相語 老樹無情風自哀之句 學唐纖麗者 安敢劇其墨乎”

7) 洪萬鍾, 『小華詩評』. “其詩天才甚高 不犯人工 如憑虛捕罔象”

창협(金昌協, 1651-1708)이었다.

읍취헌이 비록 황정견, 진사도를 배웠으나 타고난 재주가 매우 높아서 속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치(辭致)가 청혼(淸渾)하고 격력(格力)이 종일(縱逸)하였다. 흥회(興會)가 도달하는 곳에 이르면 천진난만하고 기기(氣機)가 흘러넘쳐 인력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다. 이는 아마도 황정견, 진사도로 한정할 수 없는 것이리라.

내가 읍취헌의 시를 읽은 적이 있는데 안평대군의 글씨와 꼭 같았다. 안평대군의 글씨는 비록 송설체를 모방하고 있으나 필획은 왕희지, 왕헌지이다. 읍취헌의 시가 황정견과 진사도를 스승으로 따르고 있으나神情(神情)과 흥상(興象)은 당나라 시인과 비슷하다. 이는 모두 타고난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⁸⁾

당시를 배우는 학당(學唐)의 시기와 의고주의가 풍미하던 17세기를 지나 18세기에 들어서, 조선의 시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시의 본질을 파고들면서 그 선두 주자였던 김창협에 의해 박은 시풍을 떠나 가장 천재적인 시인으로 추앙되었다. 김창협과 같은 시론을 지녔던 정조가 박은의 문집을 간행하게 되었던 이유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시의 완성도를 떠나 읍취헌은 언제나 후대 시평에서 황정견, 진사도를 배운 인물로 평가된다. 19세기에 들어서 신위가 「東人論詩」 35수 가운데 제16수에는 “해동에도 강서파가 있으니 ‘노수춘음’을 읊은 읍취헌이네[海東亦有江西派 老樹春陰挹翠軒]”⁹⁾라고 하였는데, 강서파란 황정견, 진사도를 필두로 하는 중국의 강서시파(江西詩派)를 가리킨다.

이런 인식은 현대의 학자들에게까지 이어진다. 최초의 조선 한문학사를 기술한 김태준은 “해동강서시파”라는 항목을 설정하여,¹⁰⁾ 박은을 가장 첫머리에 두고 있다. 실제 이들이 중국의 강서시파의 영향을 받아 활동한 그룹이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읍취헌 박은은 지속적으로 황정견, 진사도 등 강서시파의 시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이러한 전제 하에 지금까지 박은의 시가 분석되어 왔다.

그렇다면 박은 시가 영향을 받은 강서시파의 시법은 무엇인가? 강서시파는 남송(南宋) 때 여본중(呂本中)이라는 인물이 황정견을 시조로 하여 계보를 그린 「강서시파종파도(江西詩派宗派圖)」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 올라있는 시인들이 같은 시풍을 띠는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시의 형식면에서 시어의 농축, 생

8) 金昌協, 『農巖集』 34권 「雜識」. “挹翠軒雖學黃陳 而天才絕高 不爲所縛 故辭致淸渾 格力縱逸 至其興會所到 天真瀾漫 氣機洋溢 似不犯人力 此則恐非黃陳所得囿也 余嘗謂挹翠之詩 正與安平書相似 安平書雖規摹松雪 而其筆畫則二王也 挹翠詩 雖師法黃陳 而其神情興象 猶唐人也 此皆天才高故爾”

9) 申緯, 『警修堂全藁』 17책 「北禪院續藁」 2권 「東人論詩」

10) 金台俊 著, 金性彦 校註, 『校註 朝鮮漢文學史』, 太學社, 1994, 177-178면.

락, 도치, 어휘 활용 등의 수단을 통해 일상적인 어법 배합의 규칙을 파괴하고 어음상의 요절(拗折)을 추구하여, 수건(瘦健)하고 평담(平淡)한 기풍을 조성하는 것에 있었다.¹¹⁾ 형식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황정건 시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구법(句法)에 있기 때문이다. 구법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직 없으나, 일반적으로 시어의 조직부터 전체 시의 구성까지 포괄하는 형식적인 면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組織)의 양식’을 가리키는 격(格)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¹²⁾

박은이 황정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이유는 이 형식적인 측면, 즉 치밀한 조직력일 것으로 추정된다. 허균이 평가한 “엄진경한(嚴愼勁悍)”의 엄진이 바로 치밀한 조직력을 표현한 말이기 때문이다. 후대 김창협이 “격력(格力)”이라는 말로 박은 시의 장점을 표현하였는데, 이 역시 조직력과 관련이 있는 말이다.

3. 한시 특성에 맞는 시어 관계의 구성

읍취헌의 시가 지닌 형식적 특성, 즉 치밀한 조직력을 분석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전 한시 연구는 연구자 자신의 직관에 따라 분석이 시작되었다. 한 작가의 시를 정독하여 그 작가만의 특성을 특정해내고 그에 따라 시를 분류한다. 논문의 지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예를 들어 제시함으로써 논증해가는 과정을 거친다. 읍취헌 시에 관한 연구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시의 내용적 분석이라면 이런 방식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그런데 읍취헌의 시를 형식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면 데이터화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한시라고 할 때는 한자를 사용한 모든 시를 포괄하는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고체시(古體詩)와 근체시(近體詩)를 가리킨다. 두 시체의 차이는 압운(押韻)과 평측(平仄)에 있는데, 고체시가 비교적 제약이 덜하다. 근체시는 고체시가 더 정형화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근체시에는 율시(律詩), 절구(絶句), 배율(排律)이 있는데, 율시라는 명칭은 고체시에 비해 형식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생긴 명칭으로 보인다. 절구는 율시를 반으로 자른 형태를 띠고 있고 배율은 율시에서 연을 확장해 나간 형태이다.

왕력(王力)은 근체시의 구식을 분류한 바 있다.¹³⁾ 오언율시의 구식(句式)을 보면, 술어의 양상에 따라 간단구(簡單句), 복잡구(複雜句), 불완전구(不完全句)로 나누었는데, 간단구의 구식 세목(細目)은 135개, 복잡구의 세목은 150개, 불완전구의 세목은 115개로 분류하였다. 오언율시만 해도 어법을 따진다면 400개의 세목이 나오는 것이다. 칠언

11) 周裕錫, 「江西詩派風格論」, 『文化遺産』 1987년 제 2기.

12) 구지현, 『朴闇 詩의 文藝美 研究』, 연세대 석사, 1998, 24면.

13) 왕력 저, 송용준 역주, 『중국어시론 1』, 소명출판, 2007, 439-593면.

을시는 오언율시에 2개의 글자가 덧붙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 다양하여 몇 개인지 확정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 시구 하나를 분석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세목이 나온다면, 시 한편의 구법을 구분하는 데는 따질 수 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출현할 것이다. 왕력의 구 분석은 시를 하나의 문장으로 보고 문장 요소를 따져서 구문을 분석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다양한 세목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시를 분석하는 첫 시도에서는 좀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한자는 한 글자가 한 음을 지니기 때문에 시구의 글자가 곧 음의 수이다. 각 음에는 성조가 있으므로 성조에 따라 고저장단의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각 연의 마지막 글자는 운자를 사용하는 각운(脚韻)을 취한다. 한문의 특성상 한자의 품사나 문장성분은 정해져 있지 않다. 글자가 놓이는 위치와 다른 글자와의 관계에 따라 문장성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愛”라는 글자가 “사랑”, “사랑하다”, “사랑스럽다”, “아깝다” 등의 뜻이 있을 수 있고 수식하거나 수식받으면서 더 다양한 뜻을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문장을 분석하기 보다는 의미 단위로 나누는 편이 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

중국시의 기원인 시경(詩經)과 초사(楚辭)는 한 구에 2언에서 11언까지 다양한 음수로 이루어져 있으나 한 구가 다섯 글자로 이루어진 오언시와 일곱 글자로 이루어진 칠언시로 정착되었다. 오언율시의 형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한 수는 8구로 이루어져 있어 모두 40글자이고, 둘째, 넷째, 여섯째, 여덟째 구는 마지막 글자에 압운하고 첫째 구에도 압운을 할 수 있으며, 한 구내에서는 평측을 번갈아 사용하고, 한 연에서는 되도록 대장(對仗)을 사용한다. 또한 출구(出句)와 대구(對句)는 한 연이 되고, 두련(頭聯), 함련(頷聯), 경련(頸聯), 미련(尾聯)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구조를 지닌다. 칠언율시는 오언율시와 같은 형식이나 한 구가 일곱 글자이다.

읍취헌의 오언율시 「雨中有懷擇之」를 예로 들어 일반적인 율시의 의미단위를 나누어보기로 한다.

寒雨不宜菊	찬 비는 국화에 걸맞지 않게 내리고
小尊知近人	작은 술동이는 사람 가까이 있구나
閉門紅葉落	문을 닫으니 붉은 낙엽이 떨어지고
得句白頭新	시구를 얻은 건 백발에 새롭구나
歡憶情親友	정다운 벗 즐거이 생각하지만
愁添寂寞晨	적막한 아침에 시름만 더하도다
何當青眼對	그 언제나 반가운 눈길로 만나
一笑見陽春	한바탕 담소하며 양춘을 볼거나 ¹⁴⁾

14) 의미단위의 객관성을 위해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였다.(挹翠軒遺稿卷三)

오언시는 일반적으로 의미단위가 2언 - 3언으로 나뉜다. 두련의 출구인 “寒雨不宜菊”은 의미단위에 따라 “寒雨”와 “不宜菊”으로 끊을 수 있다. 의미 단위 내에서 보면, “寒”은 “雨”를 수식하고, “不宜”는 “菊”을 보조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寒雨”와 “不宜菊”는 주술관계 있으므로, 그 다음으로 밀접한 관계라 할 수 있다.

두련의 대구인 “小尊知近人” 역시 “小尊[樽]”과 “知近人”으로 끊긴다. 한편 “寒雨不宜菊”과 한 연에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구 다음으로 가까운 자리로 볼 수 있다.

함련 출구인 “閉門紅葉落”와 대구인 “得句白頭新”도 마찬가지로이다. “閉門”과 “紅葉落”, “得句”과 “白頭新”으로 각각 의미단위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함련은 두련과 달리 “對仗”을 이룬다. “閉門”과 “得句”, “紅葉落”과 “白頭新”은 한 구에 있는 것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대구이다. 경련도 대장을 이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계이다.

시어의 의미 단위를 단순화한다면 각 시어 사이에 몇 가지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1구의 “寒”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寒은 雨와 같은 의미 단위에 있다.

寒은 雨/不/宜/菊과 같은 구에 있다.

寒은 小와 대구의 위치에 있다.

寒은 小/尊[樽]/知/近/人과 같은 연에 있다.

寒은 雨/不/宜/菊/小/尊[樽]/知/近/人/閉/門/紅/葉/落/得/句/白/頭/新/歡/憶/情/親/友/愁/添/寂/寞/晨/何/當/青/眼/對/一/笑/見/陽/春과 같은 시에 있다.

칠언시의 경우를 살펴보자. 다음은 음취현의 칠언율시 「再和擇之」이다.

深秋木落葉侵關	깊은 가을 낙엽이 문 앞에까지 침노하니
戶牖全輸一面山	창밖에는 일면의 산이 온통 다 보이누나
縱有盃尊誰共對	술잔과 술병이 있은들 누구와 마시리오
已愁風雨欲催寒	비바람이 추위를 재촉할 것을 걱정하노라
天應於我賦窮相	하늘이 응당 나에게 궁상을 주었으리니
菊亦與人無好顏	국화조차도 사람에게 좋은 안색이 없어라
撥棄憂懷眞達士	근심을 떨쳐 버리는 것이 참으로 달사이니
莫教病眼謾長潛	병든 눈 속절없이 늘 눈물 흘리게 하지 ¹⁵⁾

http://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110A_0040_010_0100&viewSync=TR

15) 한국고전번역원(挹翠軒遺稿卷三)

http://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grpId=&itemId=MO&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최종정보&dataId=ITKC_MO_0110A_0040_020_0040&viewSync=TR

칠언시는 보통 의미단위를 4언-3언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 의미단위를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오언시보다 늘어난 두 개의 글자가 시구 내에서의 역할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왕력이 칠언율시의 구식을 확정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두련의 출구인 “深秋木落葉侵關”은 “深秋木落”과 “葉侵關”로 분명하게 의미 단위가 나뉜다. 두련의 대구인 “戶牖全輸一面山”은 “戶牖”와 “全輸”와 “一面山”으로 성분을 나눌 수 있다. 함련의 출구인 “縱有盃尊誰共對”는 “縱有盃尊”과 “誰共對”로 나눌 수 있으나, 대구인 “已愁風雨欲催寒”은 “已愁”와 “風雨欲催寒”로 나뉜다. 즉, 일반적인 의미 단위인 4언-3언으로 나뉘기도 하고 5언의 시구 전체와 관계를 맺어 2언 - 5언의 형태를 띠기도 하며, 2언 - 2언 - 3언으로 나뉘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7언의 시구 구조는 5언의 시구 앞에 두 글자가 첨가된 것으로 보면 실제로 간단하다. 위에 거론한 “深秋木落葉侵關”의 경우 “深秋”, “木落”, “葉侵關”으로 나뉜다면, 4언-3언으로 나눈 것보다 의미단위가 좀 더 세분화된다.

경련의 “天應於我賦窮相 菊亦與人無好顏”은 각각의 글자가 대구를 이루고 있다. 天과 菊, 我와 人, 賦와 無, 窮相과 好顏은 實辭로서 대응하고 있고, 應과 亦, 於와 與는 말의 의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글자가 대응하고 있다. “應”은 강한 추정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뒤에 나오는 5언 전체를 수식한다고 볼 수 있으나, 天이 전체 문장의 주어로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미상 天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대구의 菊과 亦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이다. 따라서 이 구 역시 2언-2언-3언의 의미단위로 분할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오언율시와 마찬가지로, 4구의 ‘寒’을 기준으로 각 시어와의 관계를 설정해보도록 하자.

寒은 운자이다.

寒은 欲/催와 같은 의미단위에 있다.

寒은 對와 대구의 위치에 있다.

寒은 已/愁/風/雨와 같은 구에 있다.

寒은 縱/有/盃/尊/誰/共/對와 같은 연에 있다.

寒은 深/秋/木/落/葉/侵/關/戶/牖/全/輸/一/面/山/已/愁/風/雨/縱/有/盃/尊/誰/共/對/天/應/於/我/賦/窮/相/菊/亦/與/人/無/好/顏/撥/棄/憂/懷/眞/達/士/莫/教/病/眼/謾/長/潛과 같은 시에 있다.

위와 같은 설정은 시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같은 의미 단위에 있을 때

시어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같은 구, 같은 연, 같은 시로 관계성은 열린다. 대구의 위치는 같은 연에 있는 것과는 층위가 달리 밀접할 수 있으므로 따로 설정해준다.

「雨中有懷擇之」와 「再和擇之」는 별개의 시이지만 “寒”이라는 시어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雨”가 양쪽 다 같은 구에 위치해 있는데 「雨中有懷擇之」에서는 같은 의미단위로 묶여있다. 또 “菊”, “愁”, “人”, “對”, “一”, “天”도 양쪽 다 출현한다. 40글자인 오언율시와 56글자인 칠언율사에서 8개의 글자가 공통으로 출현하는 것이다.

단지 이 두 편의 시만 놓고 본다면 벗 이행(李荇)에게 보낸 시라는 공통점에서 기인한 유사성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우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음취헌의 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각 시어 간의 거리를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객관적인 논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4. 시어의 친연성(親緣性) 분석을 통한 검증 가능성

기존 연구에서 음취헌 시가 수용한 황정견의 시법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되었으나, 대표적으로 점철성금(點鐵成金)으로 대표되는 전고의 활용,¹⁶⁾ 설명적인 산문 투의 송시 기법, 요체의 활용¹⁷⁾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음취헌의 시는 강서시파의 구법을 따르면서도 천재성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당시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김창협 이래로의 평가였다. 특히 조선 후기 진시운동과 함께 “天真”을 체득하고 드러낸 시인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그런데 “天真爛漫”이라든가 “天機宕逸”이라고 표현되는 비유적인 평어를 시어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우선 높이 평가된 박은시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음취헌의 시 가운데 “風從木葉蕭蕭過 酒許山妻淺淺斟”, “春陰欲雨鳥相語 老樹無情風自哀”, “怒瀑自成空外響 愁雲欲結日邊陰”, “夜深纖月初生影, 山靜寒松自作聲”, “一年秋興南山色 獨夜悲懷缺月懸”, “故人自致青雲上 老我孤吟黃菊邊”, “雨後海山皆秀色 春還禽鳥自和聲”, “風帆飽與潮俱上 漁戶渾臨岸欲傾” 등의 시는 비장(悲壯)하고 노건(老健)하며 청신(淸新)하고 경절(警絶)하다. 이규보 문집 가운데 이와 비슷한 시어 하나라도 어찌 얻겠는가?¹⁸⁾

16) 이종목, 『해동강서시파 연구』, 태학사, 1995, 207-210면.

17) 홍순석, 「박은 시의 수사기교 연구(1)」, 『한국한문학연구』 34집, 한국한문학회, 2004, 247-275면.

18) 金昌協, 『農巖集』 34권 「雜識」. “挹翠詩 如風從木葉蕭蕭過 酒許山妻淺淺斟 春陰欲雨鳥相語 老樹無情風自哀 怒瀑自成空外響 愁雲欲結日邊陰 夜深纖月初生影 山靜寒松自作聲 一年秋興南山色 獨夜悲懷缺月懸 故人自致青雲上 老我孤吟黃菊邊 雨後海山皆秀色 春還禽鳥自和聲 風帆飽與潮俱上 漁戶渾臨岸欲傾等語 悲壯老健 淸新警絶 如李奎報集中 那得有一語似此”

위는 김창협이 읍취헌의 시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다. 8개의 연을 소개하고 있는데, 모두 칠언율사에서 뽑혀온 것이다. 두련을 뽑은 것도 있으나 대체로 경련과 함련을 뽑아온 것이다. 이 시구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대우(對偶)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고, 곧 격(格)이 잘 짜여있음을 의미한다. “老健”이란 이런 격력을 가리키는 말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짝이 되는 시어의 이미지가 매우 새롭다는 점이다. “風從木葉蕭蕭過 酒許山妻淺淺斟”의 경우, 자연물의 일부인 “木葉”과 사람인 “山妻”가 짝이 되어 있어 층위가 맞지 않지만 두 시어가 사용되어 깊은 산속에 은거하여 술을 마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아울러 주객의 위치 역시 전도되어 있다. 실제로는 바람 때문에 나뭇잎이 날리는 것이지만 시에서는 바람이 나뭇잎을 따라간다고 하였고, 아내가 술을 찬찬히 따르는 것이지만 술이 아내가 술 따르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사고의 과정을 도치시키고 있다.

“春陰欲雨鳥相語 老樹無情風自哀”는 신위가 “老樹春陰”이라고 거론하기도 하였던 구절로, 읍취헌 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시구로 거론된다. “春陰”과 “老樹”도 꼭 맞는 대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화창한 봄날 새가 지저귀는 것이 일반적인 봄 풍경이었지만 비가 오려는 지 어둑어둑한 때 새가 지저귀고 있다고 하였다. 날씨의 변화를 먼저 알아차린 새가 비를 피하기 위해 소란스럽게 깃드는 순간을 포착해내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그대로 묘사해냈다고 할 수 있다. 대구는 비가 내리기 직전 바람이 나무에 불어오는 상황인데, 나무는 흔들리지 않지만 그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를 통해 바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老樹”와 “風”에는 “無情”과 “自哀”의 시어를 붙여서 감정을 실었다. 이 구절은 경물의 묘사에서 시작하여 시인 자신의 심사(心思)를 갈무리해 넣는 정경융합(情景融合)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상적인 어법 배합의 규칙을 파괴하지만 도리어 “眞”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은 김창협이 감식안에 기대어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것이다. 여기에 예시한 대로 사물에 감정의 표현을 덧붙여 정경융합을 유도한 것인지, 대구로 사용하는 시어가 층위가 달라서 청신한 느낌을 주는 지, 또는 다른 시구에서 보이듯 響-陰, 影-聲, 色-聲처럼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대치시켜 사용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인지는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연구 방식이라면 연구자가 직접 시를 읽고 직관에 따라 가설을 세우고 시를 분류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몇 백수에서 몇 천 수에 이르는 시를 개인이 모두 분석해내는 것이 가능할까에는 의문이 든다. 결과적으로 시인의 대표작을 선정하고 샘플을 대상으로 시적 경향을 분석해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읍취헌의 경우는 이전의 평이 구법 즉 형식에 관한 것으로, 시어의 결합에 주목한 것이었다. 이는 시어끼리의 친연성으로 판독해낼 수 있는 특성으로 보인다. 의미단위에서 어떤 시어끼리 결합되었는지, 대구로 어떤 시어가 사용되었는지, 한 구 혹은 한 연 안에서 가까이 있는 시어가 무엇인지 모두 데이터화해 낼 수 있다면, 어떤 글자들이 주로 결합되는지 그 경향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생소한 층위의 시어가 대구로 사용되는지, 사물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어가 한 의미단락에 쓰이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다.

5. 결론

읍취헌 시의 분석 방법에 관한 시론은 디지털인문학을 한문학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디지털인문학과 전통적인 인문학은 다른가에 대한 질문에 기존 연구에서 대답한 바 있다. “정보기술을 인문학 연구와 인문 교육의 도구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에 시점을 둔다면 새로운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고, 학문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전통적인 인문학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것이다.¹⁹⁾

한문학 분야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으나, 연구방법론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시 분석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품평 용어는 유험(劉勰, 465-539)의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오랜 역사를 지닌다. 오랜 세월 시론에 많은 발전이 있어왔으나 여전히 경험을 축적한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하여 시작되는 면은 부인할 수가 없다.

“디지털문식”을 한문학의 개인적 연구에 도입한다면 이러한 직관적인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읍취헌 시의 분석 방법에 대한 시론을 제시하여 보았다. 한시는 글자와 글자가 엮어서 한 편의 시가 이루어진다. 글자와 글자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시상, 혹은 이미지까지 시각화하여 구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 작가가 어떤 글자를 선호하고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가 의미단위로 묶이는지는 현재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한문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읍취헌은 “侵”자를 많이 사용하였다고 “老”라는 글자를 즐겨 썼다고 하는 주관적 검토에 따른 기술 대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기술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19) 김현 · 임영상 · 김바로, 전계서, 42-43면.

이런 디지털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분석 방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 김창협은 이규보를 언급하였는데, 송풍을 떠는 이규보의 시는 신기함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양상은 읍취헌과 비슷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읍취헌 시의 가장 큰 특징인 “天真”이라는 평은 결국 연구자가 시각화의 결과를 통해 분석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날로그적인 방식만을 사용한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된다.